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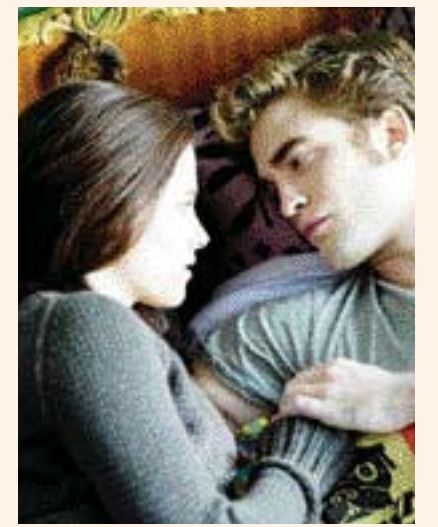
영 화



‘이끼’ 정재영

새 영화

이클립스



인간과 뱀파이어, 늑대 인간의 사랑을 그려 많은 사랑을 모았던 스테파니 메이어의 판타지 로맨스 ‘트왈라이트’ 시리즈 세번째 이야기다.
주인공 벨라를 중심으로 에드워드와 제이콥의 삼각 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며 주인공들의 심정변화를 영상 안에

인간과 뱀파이어
그리고 늑대인간
사랑·우정·복수

잘 풀어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에드워드와 제이콥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중인 벨라. 사랑과 우정 앞에서 혼란스러운 벨라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한편 에드워드에게 애인을 희생당한 빅토리아는 신생 뱀파이어 군대를 만들어 벨라에게 복수를 감행하려고 한다. 벨라가 위험에 처하자 라이벌이었던 에드워드와 제이콥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심한다.
‘트왈라이트’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여성팬들의 우상으로 떠오른 로버트 패틴슨과 크리스틴 스투어트, 테일러 로트너 등이 출연하며 ‘썸머 데이즈 오브 나이트’를 만든 데이비드 슬레이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로맨스 뿐 아니라 신생 뱀파이어 군대에 맞서는 컬레가와 퀘렛족 연합군의 박진감 넘치는 전쟁신이 인상적이다.
북미 개봉 당시 다소 혹평을 받았던 두 번째 시리즈 ‘뉴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름엔 역시 ‘공포’... 스릴러물 몰려온다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찬사를 받은 영화 ‘추격자’ 이후 총무로의 주된 이슈는 스릴러물이다. 올 여름 역시 액션 스릴러물이 속속 개봉하며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첫번째 스타트를 끊는 영화는 15일 개봉 예정인 ‘이끼’다.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윤태호의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끼’는 30년간 은폐된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을 찾은 낯선 손님 유해국과 그를 경계하는 마을 사람들 간의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그린 영화다.

만화 원작 ‘이끼’ 영화계의 기대 한몸에 받고 15일 개봉
‘아저씨’ 원빈 납치된 소녀 구하기... 거친 남자 파격 변신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 연기

‘이끼’ 화제의 중심이 된 이유는 팬을 확보하고 있는 탄탄한 원작과 함께 ‘투깝스’, ‘공공의 적’ 등을 만든 흥행 미술사 강우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해피엔드’의 정지우 감독이 쓴 각본도 관전 포인트다.
기대를 갖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배우들의 연기다. 이장 역을 맡아 70대 노인 역을 선보이는 정재영을 비롯해, 그와 대립각을 세우는 유해국 역의 박해일이 연기대결을 펼친다. 여기에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유해진과 허준호, 조금은 엉뚱한 검사 역을 맡은 유준상까지 명품 연기를 볼 수 있다.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아 영화의 ‘감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저씨’ 원빈

영화 ‘아저씨’(8월 5일 개봉 예정)는 원빈의 파격 변신이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다.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이미지로 각인된 원빈이 기존의 이미지를 깨고 냉혹한 인물로 변신했다.
‘아저씨’는 자신이 세상 소통할 수 있게 해준 소녀가 납치되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 한 남자의 이야

기다. 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 세계에 몰입돼 살아가는 한 남자와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가득한 소녀가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세심하게 포착했다. 마약, 납치, 장기 매매 등 다소 센 소재들이 등장하며 원빈의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상대역으로는 여행자의 김새론이 출연한다.
설경구가 주연을 맡았던 ‘열혈남아’의 메가폰을 잡았던 이정범 감독이 두번째 작품이다.

이유도 고민도 없이 살육하는 연쇄 살인마와 애인을 잃고 복수에 불타는 국가정보원의 사투를 그린 ‘악마를 보았다’(8월 12일 개봉 예정) 역시 톱배우들과 감독의 조합이 눈길을 끈다.

‘파이란’,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후 오랫동안 주류 영화계에서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최민식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연쇄 살인마를 맡았으며 ‘아이리스’의 이병헌이 상대역으로 출연한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달콤한 인생’을 통해 자신만의 연출 스타일을 구축한 김지운 감독 작품이다.

8월 중순에 관객들을 찾아오는 ‘심야의 FM’은 인기 절정의 DJ가 마지막 방송날 연쇄살인마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 가족이 죽는다는 설정이 호기심을 자아내는 영화로 ‘걸스 카아웃’을 만든 김상만 감독의 두번째 영화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수애가 딸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DJ로 출연하며 유지태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9월 초 개봉 예정인 ‘해결사’는 살인 누명을 벗기 위해 주인공이 하루 동안 사건의 배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액션 영화에 일가견이 있는 류승완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으며 류감독 밑에서 조연출을 맡았던 신임감독 권혁재가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냈을 지 관심이 모아지는 작품이다. 다른 영화에 비해 스릴러 보다는 액션에 방점이 찍혀 있는 작품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배우 설경구가 주연을 맡았으며 이정진과 오달수가 뒤를 받친다. 여기에 최근 흥행작인 ‘방자전’에서 변화도 역으로 눈도장을 찍은 송새벽과 ‘파스타’의 이성민·문정희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